

아일랜드의 국토개발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

- 아일랜드는 유럽의 강소국으로 빠른 시간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토문제(지역불균형, 삶의 질 문제)를 안고 있음

[아일랜드의 주요 국토개발전략]

- 국토의 계층화·네트워크화
 - 국토 전체를 관문(Gateway) - 지역중심지(Hub) - 카운티 또는 타운(County/Town)으로 구분하며 이들 지역간 상호 연관체계 구축
- 지역별 개발전략 수립
 - 7개 지역(중부, 서부 등)으로 구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
-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추진
 - 1만 300명의 공무원을 수도 더블린 중심부에서 25개 카운티(53개 장소)로 이전
- 농촌개발정책 추진
 - 농촌인구를 유지·확대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운영
-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지금, 아일랜드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하나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음

1. 아일랜드의 개관 및 당면과제

● 아일랜드 개관

- 국토면적은 7만 282km²로 한반도의 약 3분의 1에 해당
- 총인구는 403만명(2004)이며 인구밀도는 57인/km²임. 그러나 수도 더블린에 총인구의 35%인 115만명이 거주
- 1960년대부터 경제 근대화에 착수했으며 2003년 현재 1인당 GDP는 3만 3600달러에 이룸
 - 10년 전에는 영국의 1인당 GDP보다 3분의 2 수준이었으나 1999년에는 영국의 90% 수준에 도달했으며,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는 영국과 일본보다 앞서 세계 7위임

● 당면과제

- 지역간 소득격차와 지역불균형 심화
 - 외국기업 및 대기업은 더블린 등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임
 - 기업들이 입지함에 따라 인구는 더욱 집중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도시 지역에는 보다 나은 수준의 기반시설이 공급됨
 - 반대로, 생산성이 낮은 영세 제조업이 위치한 지방 소도시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
- 삶의 질 저하
 - 대더블린권에서는 과밀로 인한 교통·주택·환경문제가, 반대로 지방 소도시에서는 기반시설 공급부족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

2. 아일랜드의 국토개발 이념과 패러다임

● ‘더블린과 나머지 지역’에서 상호 협력지역으로

- 아일랜드의 가장 일반적인 공간인식은 ‘더블린과 나머지 지역’임. 더블린지역은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, 나머지 지역은 이를 잃어가고 있다는 의식의 반영임

- 그러나 더블린은 소도시들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대상이 아니라, 국가차원에서 보았을 때 국가성장을 위해 중요 자산임을 강조
- 즉, 한 지역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서만이 모두가 성과를 거두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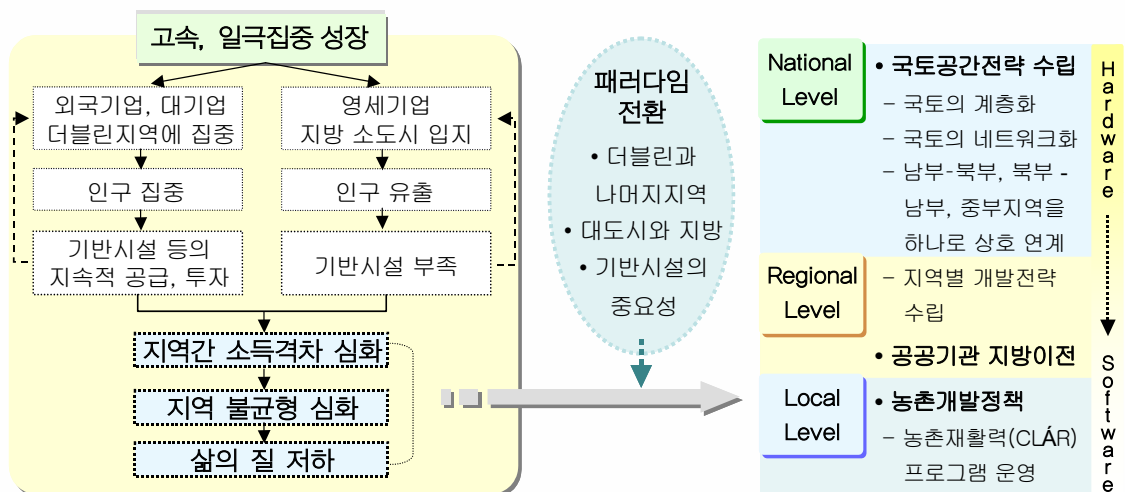
● ‘도시 대 지방’에서 도시와 지방으로

- 도시와 농촌을 완전히 다른 분리된 개체로 바라보는 성향이 지배적임
-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특정 도시나 타운이 아닌, 전지역의 성장에 골고루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도시나 타운은 단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지방 전체를 위해 중요한 대상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음

● 기반시설 공급의 중요성

- 기반시설은 기업과 인구집중의 중요한 요인으로써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계속해서 쇠퇴하는 연쇄효과가 발생함
 - 따라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 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충분한 공급이 중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함

【그림 1】 아일랜드 국토의 당면과제와 국토개발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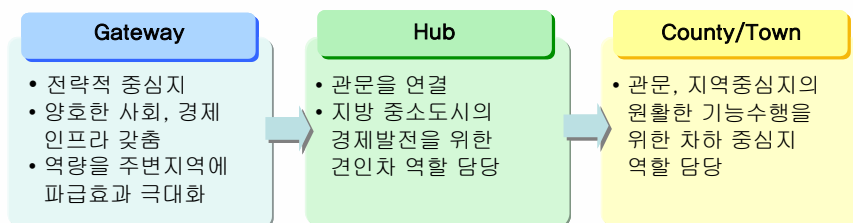


3. 아일랜드의 세부과제별 국토개발전략

● 국토공간전략(National Spatial Strategy 2002-2020) 수립

- 국토공간전략은 국가개발계획(National Development Plan 2000-2006)을 수립하던 중 핵심사안인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이를 전체 국토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
- 전체 국토를 ‘관문(Gateways) - 지역중심지(Hubs) - 카운티 또는 타운’ 구조로 계층화·네트워크화

[그림 2] 아일랜드 국토개발전략에서의 Gateway, Hub, County/Town의 성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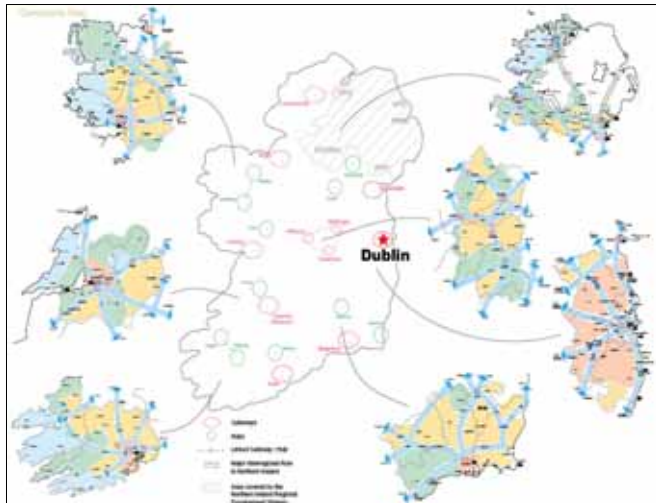


-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개발전략 수립
 - 대더블린지역의 통합: 토지이용과 교통정책의 효과적 연계, 혁신을 위한 도시지역의 역량 지원
 - 남부- 남동부- 서부- 북서부지역의 강화: 더블린과 균형을 이루도록 주요 도시요소들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문을 활용
 - 중부- 남동부지역의 보강: 관문과 연계된 중부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도시요소를 창출
 - 서부- 남서부지역의 재생: 낙후된 지역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시설과의 접근성 향상
- 모든 지역들을 하나로 상호 연계
 - 국가차원에서 경제·공간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부- 북부지역간 교류 증진
 - 북부- 남부지역의 가교로서 중부지역의 역할 증대

[그림 3] Gateway와 Hub



[그림 4] 지역별 개발전략



- 경관·하천 등과 같은 환경·문화자원은 지역차원에서 공유하여 주요 해안 지역과 자연자원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공간체계(틀) 구축

● 공공기관 지방이전

- 2003년 12월 재정부 장관이 국가개발계획(NDP)의 핵심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분산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음
- 역사상 최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으로서 더블린을 제외한 53개 지역으로 8개 정부부처와 토목공사및공공건물관리청(Office of Public Works : OPW)과 행정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1만 300명의 공무원이 이전
 - 정부부처의 집행부, 자문기관, 교육기관, 조정기관 등이 이전대상 기관임
- 지방분산시행위원회(Implementation Committee)와 OPW가 이전정책을 주관하며, 이전작업의 책임은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에게 부여
 - 각 부처는 지방분산전담반을 구성. 전담반은 Management Advisory Committee와 소속 장관에게 진행사항을 보고하며, 특별 Cabinet Committee를 설치하여 정책수행을 감독

● 농촌개발정책

- 정부는 도서지역, Gaeltacht(아일랜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) 등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유지·확대하기 위해 지역·농촌개발부(Dept. of Community, Rural, and Gaeltacht Affairs)를 신설
- 농촌지역재활력(Ceantair LagaÁrd-Riachtanais : CLÁR) 프로그램은 지역·농촌개발부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임
 - CLÁR 프로그램은 조건 불리지역의 도로, 상하수도, 농촌마을 개선, 학교시설 등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2001년 10월에 시작

4.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

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협력관계 속에서 정책추진

- 아일랜드 국토개발전략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이며, 이를 이룩하기 위한 국토의 계층화·네트워크화,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, 농촌개발정책 등은 서로 연계되어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

●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지속

- 아일랜드의 경우 그동안 수도 더블린으로 일극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
 - 특히, 양질의 거주·교육환경조성, 지역융화 노력 등이 결합되어 우리의 경우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

●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의 강화

- 농촌지역 등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

●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 박정은 연구원 (031-380-0284, jepark@krihs.re.kr)